강력한 카리스마 팀 장악
리누스 미헬스 후계자

딕 아드보카트 VS 야코프 쾨비 쿤

토털 사커냐 시계 조직력이냐

■ 스타일 다른 한국-스위스 감독 지략 대결 관심

'장군과 할아버지, 둘 중 하나만 웃는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G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위스와 16강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날 승부는 결국 양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전망이다.

네덜란드 출신 딕 아드보카트(59) 한국 감독과 야코프 쾨비 쿤(63) 스위스 감독은 스타일에서 대조적인 지도자다.

'토털사커의 창시자'로 '네덜란드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故) 리누스 미헬스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은 아드보카트 한국 대표팀 감독은 '그라운드의 작은 장군'이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자국 네덜란드 대표팀의 지휘봉을 두 차례나 잡아 아무리 주전급이라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팀에서 쫓아내는 등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장악한 불같은 성격의 지도자다.

"히딩크는 생각한 다음 움직이지만 아드보카트는 즉시 실행에 옮기고 본능을 따르는 편이다"이라는 핌 베어벡 수석코치의 비교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지도 스타일을 잘 말해준다.

사령탑 교체 등으로 어수선했던 한국 축구가 지난해 9월 아드보카트 감독 선임 이후 빠른 시간 내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팀 장악력과 선수들의 신뢰가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다.

반면 '스위스 축구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쾨비 쿤 감독은 인화를 중시하는 지도자다. 스위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인 그는 1996년부터 자국 청소년대표팀을 지휘한 뒤 2001년 6월 A대표팀을 맡아 순조로운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선수들로부터 '할아버지'로 불렸던 청소년대표팀 감독 시절 "너희 11명은 모두 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팀을 '가족'이라고 부르며 화합을 중시해 온 코비 쿤 감독의 지도력은 현재 스위스 대표팀의 커튼 같이 잘 짜인 조직력을 만든 원동력이다.

또한 선수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서 이름값이 아닌 조직에 부합하는 선수들로 팀을 꾸리는 등 부드러운 얼굴에 가려져 있는 카리스마도 쾨비 쿤 감독의 강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팀은 가족" 화합 중시
스위스 축구 아버지

양팀 감독 출사표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경기 할 것"

■ 아드보카트 한국 대표팀 감독

두 팀 모두에 중요한 경기다. 우리 팀에도 분명히 16강 진출의 기회가 있고 그 점에서 매우 기대되는 경기다.

스위스 주전 11명 중 10명이 유럽 선진 리그에서 뛰고 있다. 반면 우리는 국내파 선수들이 많아 큰 경기 경험 면에서는 스위스가 앞선다.

선수들의 수준 면에서는 한국과 스위스의 차이가 별반 없다고 본다. 스위스는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비를 우선시하다가 역습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 팀의 경기 운영 방식을 비교해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다. 조별리그 2차전 프랑스전에서는 공격수들이 다소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스위스전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스페인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

■ 쾨비 쿤 스위스 대표팀 감독

우리는 항상 승리를 위해 최대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왔다. 하지만 무승부라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 이번 한국전이 개인적으로 A매치 50번째 경기지만 축하 케이크는 필요없다. 승점 3점과 16강 진출이면 충분하다.

한국은 많이 뛰고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토고전에서는 상대 선수가 퇴장당하는 운도 있었지만 좋은 경기를 펼쳤고 프랑스전에서도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만큼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 한국은 지난 두 경기 모두 후반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 데 이는 강한 체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 1위와 2위는 차이가 크다. 2위는 16강전에서 강호 스페인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내일 한국-스위스전 심판
아르헨 엘리손도가 본다

아드보카트호의 운명이 걸린 한국-스위스전 주심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육자이자 시인인 호라치오 엘리손도(43·사진) 심판으로 결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4일 오전 4시 하노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스위스의 독일월드컵축구 G조 조별리그 최종전 심판진을 배정했다.

휘슬을 불게 된 엘리손도 심판은 지난 10일 뮌헨에서 열린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 주심을 맡아보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1994년 심판에 입문한 그는 체육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면서 시를 쓴다.

개막전의 경기 보고서를 시로 쓸 수도 있다는 평을 들었을 정도다.

한국 축구와는 꽤 인연이 깊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본선에서 한국과 멕시코전의 주심을 맡았다. 당시 김호곤호는 김정우(나고야)의 결승골로 멕시코를 1-0으로 꺾었다. 왠지 예감이 좋은 심판이 결전을 맡은 셈이다.

아테네올림픽 대표팀 출신으로 아드보카트호에 승선한 조재진(시미즈), 이천수(울산) 등은 엘리손도 심판의 얼굴을 기억할 것 같다.

엘리손도 심판은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린 세계청소년(U-20)축구선수권대회 한국-일본전, 한국-파라과이전도 맡아본 적이 있다.

부심은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다리오 가르시아 심판과 로돌포 오테로 심판으로 정해졌다.

같은 시간 쾰른에서 열리는 프랑스-토고전 주심은 우루과이 출신의 호르헤 라리온다 심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